

민주 대선후보 경선 흥행 빨간불

선거인단 나흘간 8만여명 등록 그쳐

20만 광주·전남서도 절반 수준 예상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경선 흥행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경선 선거인단 등록자가 나흘 동안 8만여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2일 오후 5시 현재, 선거인단 등록자는 8만 8768명으로 하루 평균 2만 2000여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다음달 4일까지 28일 동안 200만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부적으로 세운 것을 감안하면 기대 이하의 결과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권리당원 등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선거인단 규모는 100만명에도 못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각 후보 캠프에서

도 저조한 선거인단 모집 성과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100만명 선거인단 모집을 목표로 삼은 문재인, 손학규 캠프 진영에서는 절반만 달성해도 대성공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만명 정도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했던 광주·전남지역의 선거인단 규모도 10만~13만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현상은 올림피아와 휴가철이 겹친데다 정당대회 등 계속되는 당내 선거인단 모집에 따른 피로도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신청에 있어 공인인증서 첨부 등 선거인단 모집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안철수 현상 등으로 민주당 경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저하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캠프에서는 자체 조직을 독려하는 한편 당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도가 떨어질 경우 경선의 국민적 손으로 대선 후보를 뽑는다는 원래 취지와 달리 조직 선거전 양상을 내보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한 지 나흘 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흥행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올림피아에 끝나고 경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높을수록 각 후보 캠프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선거인단 등록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이제 각 후

보 캠프에서 주변에 선거인단 참여 권유를 막 시작하는 단계"라며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각 후보 진영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다음 주 중반부터 선거인단 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선 방식을 둘러싸고 각 후보 캠프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경선 흥행을 위해 합동 연설회에 프리젠테이션이나 찬조 연설을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의 반발에 부딪혔다. 현장 연설에 약한 문재인 후보를 위한 '롤 변경'이라는 의구심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오는 15일 실시되는 권리당원 모바일투표도 후보 간의 TV토론회 한 번 없이 실시된다는 점에서 15일 이전에 토론회를 실시하거나 투표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野 대권주자들 주말 표심공략

광주·전남 찾은 김두관 지방분권·재벌개혁 약속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주자들은 주말인 11~12일 전국을 누비며 표심을 공략했다. 박준영 후보는 전남 11일 총복을 방문, 이시종 지사와 면담했으며, 오창과화산업단지 찾았다. 그는 이어 12일에는 여수엑스포 폐막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후보는 전남 제주항운노조 사무실에서 조합원 간담회를 하고 절물자연휴양림을 찾아 선거인단 모집 캠페인을 벌였다. 그는 또 이날 이코노미스트지와 인터뷰를 했다. 손학규 후보는 전남 대전과 총복으로 내려가 조직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이날에는 강원도 화천군 감성마을에서 열린 이외수문학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손 후보는 이 작가와 2006년 '100일 민심대장정' 때 처음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 오고 있다. 손 후보는 또 임동원 전 국민의정 부 통일부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영입

하는 등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일단락 지었다. 선대위원장은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이낙연 의원, 최영희 전 의원 3명이 맡았고 부위원장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하기로 했다. 10명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는 오제세(정책)·신학동(특보단)·설훈(인재영입)·김동철(대외협력)·김우남(농어업)·양승조(직능)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임내현 의원은 법률지원본부장, 이찬열 의원이 조직본부장, 전혜숙 전 의원은 직능본부장, 박완주 의원이 2040본부장을 각각 맡았다. 김두관 후보는 이를 통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세력인 광주·전남을 누렸다. 그는 11일 민주통합당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재벌개혁을 하고, 호남의 한을 풀고, 지방이 잘 사는 지방분권국가 만들 유일한 민주당 후보"라고 자임한 뒤 "호남과 한 몸이 돼 목포, 전라도, 광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광주 지역 현안과 관련 기자회견 이전, 삼성 등 광전자 분야 대기업 이전 유도, 광주·목포 KTX·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의 신속한 추진, 아시아 항공수리기지로 무안공항 육성 등을 약속했다. 정세균 후보는 전남 총복을 찾은 뒤 이날 제주와 강원지역을 방문, 지지세 확산에 나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오전 광주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부터 1박2일간 민주당 전남도당과 나주지역위원회, 4-19 민주혁명 기념관을 방문하고 지역일로·시민단체·시의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새누리 '공천현금' 관련 현기환씨 주초 소환

檢, 돈 출처·종착지 수사력 집중

새누리당 4·11총선 공천현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사자들의 사법처리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대선을 4개월 앞둔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결과와 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지검은 지난 3월 15일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의 비서 정동근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청탁자금 등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지난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주초 현기환 전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3억원의 종착지가 현 전 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당 안팎에선 4·11총선 공천위원이었던 그의 사법처리 여부에 당의 명운이 걸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정치쇄신을 내세웠던 공천이었던 만큼 그가 만약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다면 당에는 치명타가 될 게 분명하다. 당 전체의 도덕성이 추락하면서 그동안 역점을 뒀던 쇄신의 불씨가 꺼질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특히 금품수수 의혹이 현 전 의원의 개인 차원이 아니라 당의 공천 과정과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면 지도부 사퇴 수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이끌었던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대국민사과라는 강도높은 수습책이 모색되면서 현재의 황우여 지도부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8·20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으로선 대선플랜 전면 재조정으로 물과 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산지검은 돈의 출처와 종착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영희 의원이 중간 기착지인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공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전달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와 함께 불법자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현 의원을 중심으로 전방위 계좌추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기자 galee@연남뉴스

이해찬 "박근혜, 차명 후원금 인사들 내쳐야"

이정현 "사과 안하면 고소"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이 때도 차명으로 후원금을 받은 사람들을 내쳐야 올바른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새누리당 공천장사는 단순한 공천장사 사건이 아니라 친박(친박근혜)계 사이에서 뇌물 형식으로, 후원금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유폐했다는 것이 정황상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정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차명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렇다면 부산·경남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에게

는 얼마나 컸는지 유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새누리당 후보 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현영희 의원 이외의 공천비리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던 바 있다고 말했다"며 "이미 공천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예방을 못하고 사태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후원금은 현금이나 계좌를 통해 입금하므로 저 이정현이 현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이 대표의 말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폐'라며 "오늘 중으로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이종걸 징계안 제출

새누리당은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그년'이라고 표현한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의진·김정록·송영근 의원 등 당

안철수, 출마 방식 어떻게

민주 입당·신당 창당·무소속 출마 놓고 경로·시기 관심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출마 방식이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 예상하는 안 원장의 출마 경로와 시기는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 전후 민주당 입당, 후보단일화 전후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 등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후보 단일화 가정하에 민주당 입당이나 신당 창당 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후보단일화는 필수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선에서는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커 안 원장이 다자 구도에서 박 전 비상대책위 입장이어서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종걸기자 galee@kwangju.co.kr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무소속 출마도 본격적인 선거국면에서 들어가면 당 조직의 도움 없이는 무리수라는 점에서 현실화되기 어려운 시나리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후보검증 공세가 시작될 경우에도 당의 조직적인 방어와 반격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때문에 후보단일화 전후 민주당 입당이나 신당 창당의 형태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에 입당한다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수성향의 유

권자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게 단점이다. 민주당 경선 흥행이 실패하고 안 원장이 신당을 창당하면 민주당은 상당히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후보단일화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패할 경우 상당한 세력이 신당으로 옮겨갈 수 있다. 한편,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는 지난 1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안 원장의 대선 출마 방식과 관련, "어느 세력파도 단절하고 미래로 이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유혹이 있었지만 독자 출마가 옳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Global Top Green & Smart Energy Pioneer"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확정지역 안내

전남 진도군 진도읍 아리랑거리 조성에 따른 시가지 미관개선을 위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확정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중화공사 목적**
○ 진도읍 아리랑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시가지 미관개선을 위한 지중화 사업추진
- 지중화 확정지역**
○ 진도군 진도읍 아리랑거리 약 1.6km(동외교차로~진도실고사거리)
- 지중화공사 예정기간**
○ 2012년 11월 ~ 2013년 08월(10개월간)
- 신·증설 고객의 지중공급 시행기준일**
○ 시행 기준일 : 신문공고일 이후 30일 초과부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증설관련은 KEPCO 진도지점 고객지원팀 (☎061-540-2215), 지중화관련은 광주전남개발지사 변전개발팀(☎062-720-44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중화공사 예정 세부구간

▶시점 : 동외교차로(동외리 1025-7) ▶중점 : 진도실고사거리(남동리 732-10) [도로공장 : 1.6km]

지중화공사로 인하여 시민여러분의 통행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08월 13일

KEPCO 광주전남개발지사

임대&매매 수익성최상

- 키즈테마카페임대**
 - 각화동 홀플러스인근
 - 뷔페,파티룸,뷰티샵등
 - 면적 : 2,400㎡(725P)
 - 주차 500대
 - 보증금 3억/월1,980만
- 예식장 상설뷔페임대**
 - 돌잔치,각종행사전문점
 - 면적 : 2,824㎡(854P)
 - 주차 500대
 - 보증금 4억/월2,420만
- 도심형 생활주택 메디컬센터부지**
 - 961㎡(290P)
 - ㎡당 150만
 - 150세대, 15층
 - 14억 투자 = 수익11억

010-3666-4646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 임대

각화동 홀플러스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 4~5층 각 130평
- * 6층 110평
- 보5천 / 월200만
- * 지하 140평

(임대가 및 조건조정가능)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 15평~29평
- 9~12% 높은수익률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 매가29억~100억대
- 물건다량 보유
-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O/P 1층)

NPL/특수경매물건

→ 도대체 NPL과 특수물건이 무엇인가?
→ 왜? NPL투자를 하려고 하는가?
→ NPL과 특수물건이 만나면 수익률?
→ 세금이 전혀 없는데?
→ 소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데?
→ 선착순 4명 한정 / 비법전수
→ 주1회 3개월 수료 / 회비 550만원
→ 수료중 투자가능 (단독/공동)

주)오천경매 투자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대여금
- 법원판결문 ■운송료
- 각종채권 ■구상금
- 물품대금 ■공사대금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채무자 신용조사
·법원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